

**전일동향**

전일대비 5.20원 하락한 1,393.20원에 마감

22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5.20원 하락한 1,393.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60원 상승한 1,400.00원에 개장했다. 상승 출발한 환율은 네고 물량 유입 및 당국 개입 경계심리에 하락 전환했다. 아울러 국내증시 호조에 따른 외인 순매수세에 추가 하락하며, 1,393.2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9.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7.82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00.00	1400.50	1379.80	1393.20	1395.60
	엔화	942.28	950.43	934.15	947.78	-
	유로화	1622.32	1635.95	1607.06	1632.09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5	-6.3	-14.05	-26.67
	결제환율(수입)	-0.09	-4.66	-11.3	-23.2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9월 금리인하 기대에...1,38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40)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93.20) 대비 9.10원 하락한 1,381.7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률을 비롯한 고용시장 지표에 리스크 비중을 두며,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멕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의 9월 금리인하 확률은 60%대에서 90%대로 급상승했다. 이에 미국 2년물은 9.80bp, 10년물은 7.50bp 하락해 각각 3.698%, 4.255%를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위험선호 분위기 확산에 다우지수 +1.89%, 나스닥 +1.88%, S&P +1.52%로 마감했다. 금일 환율은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메시지와 주말 간 달러지수 급락 등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선호 심리 자극에 국내증시 외인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원화 강세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월말 수출 네고 물량까지 유입할 경우, 장중 낙폭 확대도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수입결제 등 달러 실수요 저가매수에 하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378.75 ~ 1387.50 원</b>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825.65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9.10원 ↓
	■ 美 다우지수 : 45631.74, +846.24p(+1.8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2.0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8056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